

■ 특특뉴스

제주항공, ‘애견여행 도시락’ 판매

제주항공이 국내 항공업계 최초로 반려견 전용 ‘애견여행 도시락’ 판매를 시작한다.

제주항공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사전예약 서비스를 통해 키친트랏과 연어트랏, 수비드 닭 안심 스테이크 3종으로 구성된 반려견 전용 도시락을 1만5,000원에 판매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도시락은 제주항공이 운항하는 김포발 국내선 탑승객을 대상으로 하며 항공편 출발 72시간 전까지 예약할 수 있다.

제주항공의 애견여행 도시락은 반려견 식품 전문 제조업체인 ‘펫스터어드’와 함께 제작한 상품으로 닭가슴살과 연어, 딸기, 방울 양배추, 단호박, 블루베리 등의 다양한 영양분을 가진 재료를 동결 건조해 제작했다. 생후 6개월 이상 반려견이 먹을 수 있으며 실온 보관이 가능해 편리하다. 다만 털 알레르기가 있는 승객 등을 위해 기내에서는 먹일 수 없다. /오지현 기자

■ 그래픽 경제



한국 무역 적자국 1위 중국

한때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국 1위였던 중국이 이제는 무역적자 1위국으로 변하고 있다.

28일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한국의 대중 무역수지는 39억3,3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며 같은 달 최대 무역 적자국에 올랐다.

1·2월 누적 수치 또한 50억7,400만달러 적자로 무역 적자국 1위를 기록했다. 2월까지의 누적 수치 기준으로 대중 적자액은 한국의 최대 천연가스 수입국인 호주와 최대 원유 수입국인 사우디아라비아를 넘어선 수준이다.

“편리한 결제 좋아요” vs “현대카드 한정 불편”

애플페이 국내 상륙 일주일

출시 하루 만에 100만건 등록 돌풍
높은 단말기 가격·낮은 보급률 한계
대중교통·결제 불가 매장 아직 많아
“가맹점 늘기 시작하면 속도 붙을 것”

“너무 편리해 깜짝 놀랐습니다. 삼성페이를 쓰는 친구들이 지갑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이렇게 편리했구나 싶어요.”

스마트폰을 사용한 이래 그동안 아이폰만을 고수해왔던 임예린씨(29)는 애플페이의 편리함에 새삼 놀랐다고 했다. 이젠 지갑을 놓고 나와도 휴대폰만 있으면 편리하게 결제가 가능해진 것이다.

지난 21일 엄청난 관심과 함께 국내에 상륙한 애플페이가 도입된 지 일주일이지났다. 출시 하루 만에 등록 건수가 100만건을 넘어선 만큼 어느 매장을 방문하거나 종종 볼 수 있게 된 ‘애플페이 가능점이다’라는 안내문구가 그 인기를 실감케 한다. 안내문이 붙어있지 않은 곳에서도 애플페이를 이용할 수 있는지 묻는 이용자들이 점차 늘고 있다고 한다.

충장로에서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는 “지난 주말에만 해도 애플페이로 옷을 사가는 고객들이 많았다. 우리 매장에서 처음 애플



소비자가 편의점에서 애플페이로 상품을 결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페이로 결제해본다고 하는 고객들도 꽤 있었다.”

그러나 삼성페이와 달리 다양한 곳에서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없어 기대보다 그리 편하지 않았다는 이들도 찾아볼 수 있었다.

버스를 탑승하려다 당황했다는 이운정씨(23)는 “알고보니 버스는 애플페이가 아직 지원되지 않아 결제가 되지 않는다”며 “아직까지는 사용하지 못하는 곳이 많아 지갑을 들고 다녀야 해서 사실상 그렇게 편한 지 체감은 잘 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현대카드 사용자만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있어 아이폰 사용자라도 현대카드가 없다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점도 사용자들의 불만 중 하나다.

안혜민씨(28)는 “주위 친구들이 애플페이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한 번 등록해볼까, 했는데 아직까지는 현대카드 사용자들만 등록할 수 있다기에 실망했다”며 “애플페이를 쓰기 위해 현대카드를 만들 수는 없어 그냥 없는 기능이라고 생각하고 다니고 있다. 사용 가능한 매장도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보니 아직까지 모두를 위한 기능은 아닌 것 같다”고 잘라 말했다.

사용자 뿐만 아니라 매장 단말기가 애플페이가 가능한 기종인지 모르는 점들도 볼 수 있었다. 수원지구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정모씨는 “평일에는 연령대가 높은 손님들이 많아 애플페이 사용 여부를 물어보는 손님이 없었는데, 지난 주말 오전에 방문한 한 손님이 ‘애플페이’가 가능하냐고 물어보셔서 당황했다”

며 “우리 가게 단말기가 애플페이가 가능한 단말기인지 잘 몰라서 답변을 드리지 못했고, 결국 카드를 가져오지 않으신 고객님께 계좌이체를 부탁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매장에 있는 단말기가 애플페이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도 가격때문에 단말기 교체를 망설이는 이들도 있었다.

광산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는 “애플페이는 마그네틱 결제 단말기가 아닌 근거리무선통신인 NFC기능이 있는 단말기 중에서도 EMV또는 EMVCo 인증을 받은 모델이어야 결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삼성페이처럼 단순히 NFC 기능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점주 입장에서 번거롭고, 단말기 가격도 15~27만원으로 비싸 교체도 망설여지는 게 사실인데, 최근 방문하는 손님들 중에서 ‘애플페이가 되냐’는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아 혹시라도 매출에 영향이 갈까 싶어 단말기를 바꿔야 할지 고민”이라고 푸념했다.

실제 애플페이 오프라인 결제를 위해서는 NFC 결제 단말이 있어야 하나, 전국에 위치한 가맹점 290여만개 중 NFC결제 단말이 설치된 곳은 5% 수준에 그친다.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은 최근 “초기 반응을 본 많은 가맹점들이 (단말기 확대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한국에서 NFC 단말기가 적어 애플페이가 힘들다고 했지만 결국 닭과 달걀의 문제일 뿐 한번 시작하면 무서운 속도감이 붙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오지현 기자

광주경총회관 생기나...양진석 회장 지역 경제에 ‘새바람’

지역 비즈니스·홍보의 장 목표

올해 4개 사업 예산 40억 확보

광주경영자총협회(이하 광주경총) 양진석 회장(사진)의 공격적인 행보가 지역 경제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8일 광주경총에 따르면 양 회장은 지난달 15일 취임한 이래 회원사 70여개를 신규 가입 시키고 올해 100억 규모의 회관 건립기금 조성

을 위한 사무국 재정립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실제 양 회장은 광주경총 회원을 올해 말까지 500개로 확대하고, 오는 2025년까지는 700개까지로 확대하겠다고 공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광주경총 회원사는 370여 곳으로, 경총은 최근 회원사들의 회비를 인상함과 동시에 이에 준하는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광주경총의 오랜 숙원사업인 광주경총 회관 건립이다.



의 장으로 쓰일 수 있고, 양 회장 지시 아래 현재는 기금 모금에 앞서 회관 건립 예산 및 계획

경총 관계자는 “현재 회원사들이 경총의 응접실을 활용해 다양한 미팅을 진행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회관이 있으면 지역 경제인들의 비즈니스 및 홍보

를 세우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 확대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실제 경총은 현재 정부에서 4개 사업을 확보, 확정된 예산만 40억을 확보하는 쾌거를 거뒀다.

경총 관계자는 “이는 회원사에게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광주경총 자체적으로도 ‘개시카우’를 만들어 광주경총 자체가 자립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는 양 회장의 뜻”이라며 “광주경총은 관련 사업을 지속 확충, 활용함으로써 향후 회원사 혜택 제공 및 지역청년 일자리 확보 등 상생 및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www.518run.com

5·18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

23회

5·18 마라톤대회

민주의 성지
광주에서 다함께 땀시다!

일시
2023. 5. 20 (토) 집결 08:00
출발 08:30

장소
광주 승촌공원 운동장 (승촌보 내)

종목및참가비
5.18km 10,000원
10km, 하프코스 30,000원

접수기간
~ 2023년 4월 21일(금) ★현재접수중★

접수방법
전화, 팩스, 518run.com, 0518run@hanmail.net

문의
TEL (062) 720-1099, FAX (062) 720-1020 카카오톡 ID : jndnnews

주 최 518기념재단 전남매일

후 원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 대한체육회 광주광역시체육회 광주광역시체육회 골드클래스(주)